

싱크탱크와 마우스탱크



권혁용
건설경제 부국장겸 정경부장

작년 6월쯤이었다. 담뱃세 인상 논의가 한창일 때 갑자기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부담에 대한 합의’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담뱃세를 인상하더라도 저소득층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담배 소비를 더 줄일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게 주요 골자였다. 이 보고서를 낸 기관은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고서의 주장은 맞지 않았다. 편의점의 담배판매는 지난 1월 급격히 감소했다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A업체는 1월 초 전년대비 50% 넘게 빠졌지만 3월 들어서는 17%까지 감소폭이 줄었다. B업체 역시 지난 1월 전년대비 판매량이 33%까지 떨어진 이후 2월에는 22%, 3월 들어서면서 16%까지 줄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값싼 봉초담배 판매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논쟁의 와중에 정부편을 드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반발이 거셌다. 정치권에서는 봉초담배 판매라는 웃지못할 아이디어를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담뱃세 인상의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연구기관을 흔히 싱크 탱크(Think Tank), 우리말로 두뇌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에는 국책연구소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27개나 된다.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다. 지방정부도 산하에 분야별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민

간에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도 연구기관을 갖고 있다. 정부나 산업계,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국책연구소만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안을 검증하고 최상의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설립 목적을 망각한채 싱크 탱크가 아닌 마우스 탱크(Mouth Tank)의 역할로 전락하면 폐단은 심각해 진다.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는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기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객관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이나 사업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국민의 몫이다.

최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작년 11월 5일 설립허가에 이어 지난 3월 17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로써 종합, 전문, 기계설비 등 건설산업계를 대표하는 3개 업종 모두 연구기관을 갖게 됐다. 건설산업계에 연구기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년전이다. 1995년 3월 22일 종합건설업계가 출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이어 2006년

9월 5일 전문건설업계가 출자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출범했다. 이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개원하면서 건설산업은 주요 업종이 모두 싱크 탱크를 갖춘 보기도문 산업이 됐다. 앞으로 연구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없지가 않다. 연구기관들의 경쟁이 산업발전이 아닌 업종발전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각 연구기관들의 설립목적에 업종발전을 위한 연구도 포함돼 있으니, 업종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업종발전이 업역보호로 변질된다면 연구기관들은 싱크 탱크가 아닌 마우스 탱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은 최근 수년간 외형성장에서 정체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다. 건설산업계는 당면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연구기관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3곳 연구기관은 업종의 작은 이익보다 건설산업의 대의를 좇아 큰 연구에 몰두하는 진정한 싱크 탱크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작년 11월 5일 설립허가에 이어 지난 3월 17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로써 종합, 전문, 기계설비 등 건설산업계를 대표하는 3개 업종 모두 연구기관을 갖게 됐다. 이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개원하면서 건설산업은 주요 업종이 모두 싱크 탱크를 갖춘 보기도문 산업이 됐다. 앞으로 연구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3곳 연구기관은 업종의 작은 이익보다 건설산업의 대의를 좇아 큰 연구에 몰두하는 진정한 싱크 탱크가 되기를 기대한다.